

# 백령·대청·소청도 ‘지질생태 관광지’로 재탄생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평화 관광 1번지’로 거듭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웅진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백령도 51km<sup>2</sup>, 대청도 13km<sup>2</sup>, 소청도 3km<sup>2</sup> 등 3개 섬 67km<sup>2</sup>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지질공원 내 지질명소는 백령도 두무진·용트림바위·진촌현무암·콩돌해안·사곶해변, 대청도 농여해변·서풍반이·해안사구·검은낭, 소청도 분바위 등 10곳이다. 이외에도 점박이물범과 동백나무 자생복합지, 연화리 무궁화 등 총 9개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백령·대청·소청도에는 10억년 전 신원생대의 변성 퇴적암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 흔적이 남아 있어 지질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3개 섬에서는 기상천외한 지형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청도 농여해변 나이트 바위는 세로로 서 있는 지층 때문에 강력한 지각 변화의 힘을 풍긴다. 또 서풍반이는 약 100m 높이에 이르는 규암 덩어리가 웅장한 수직절벽을 형성하며 절경을 자아낸다.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는 바닷가에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국내 최대 규모 모래 언덕을 형성하며 광활한 사막의 느낌을 뽐낸다.

소청도 분바위는 흰색 석회암이 높은 압력을 받아 대리석으로 변한 곳으로,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웅진군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평화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관광 진흥 협약을 체결, 하나투어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백령·대청 지질공원을 단순 경관 관람형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생부터 생태·환경의 형성, 지역 주민의 생활까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질생태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1



2



3

- 1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 2 소청도 분바위와 월띠
- 3 백령도 두무진